



송진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6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8장 각지마사(覺知魔事) ⑤ 끝

# 마군은 내 마음속의 허망한 분별의 모습

復次 若見魔境不謝 不須生憂 若見滅謝 亦勿生喜 所以者何 未曾有人坐禪 見魔化作虎狼來食人 亦未曾見魔化作 男女來為夫婦 當其幻化 愚人不了 心生 驚怖 及起貪著 因是心亂 失定發狂 自 致其患 皆是行人無智受患 非魔所為 若 諸魔境惱亂行人 或經年月不去 但當端 心正念堅固 不惜身命 莫懷憂懼 當誦大 乘方等諸經治魔境 默念誦之 存念三寶 若出禪定 亦當誦呪 自防 悔懺慚愧 急誦 波羅提木叉 邪不干正 久久自滅 魔事衆 多 說不可盡 善須識之

다음으로는 마군경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본다 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마군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본다 해도 역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좌선을 하면서 마군이 호랑이로 변화하여 실제로 사람을 잡아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마군이 남녀로 변화하여 정말로 부부가 되는 일도 지금껏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허깨비의 변화인 마군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실재를 모르고 무서운 경계에선 마음에 공포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랑스런 곳에선 탐욕의 집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에 선정을 잃고 미친 마음이 발동하여 스스로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수행인이 지혜가 없어 스스로 환란을 일으키는 것이니 내 마음 밖에 마군이 따로 있어 외부에서 찾아와서 생기는 일은 아니다.

모든 마군경계가 수행인을 괴롭히면서 한달 한달이 지나도록 떠나지 않으면 단정한 마음으로 올바른 생각을 견고하게 다져야하며 내 목숨을 아끼지 말고 근심과 두려움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대승방등경 등 모든 경전과 마군을 다스리는 주문을 외우면서 삼보에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 또는 선정에서 나왔을 때에도 주문을 외워 마군을 방지하고 참회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하며 파라제목차의 독송을 오래도록 지속하다보면 사탄 마군이 정도로 간

섭하지 못하고 스스로 소멸하게 된다. 마군의 일은 수없이 많아 이루 다 설명하기 못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를 잘 식별해야만 한다.

대승방등경은 능엄경(楞嚴經) 유마경(維摩經) 사익경(思益經) 해탈심밀경(解脫深密經)등이며, 마군을 다스리는 주문은 능엄주(楞嚴咒) 대비주(伏魔咒) 등이다.

파라제목차는 번역하면 계율이다. 이도 역시 대승계와 소승계의 구별이 있다. 수행자가 선정 속에서 마군에게 뇌란을 당할 때에 일체 제물의 모습과 삼보와 모든 대승경전을 가만히 암송하면 마군은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삼매도 스스로 목전에 나타나게 된다.

히 해야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마군의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마군은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 수행자의 정신을 미치게 하여 기쁘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하기 때문에 병이 나고 끝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때는 수행인이 사탄 선정과 사탄 지혜와 사탄 신통과 사탄 다라니를 얻어 사탄 설법으로 교화시키면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믿고 복종하기도 한다. 하지만 훗날에는 출세간 선한 일과 정법을 파괴한다.

이와 같은 모든 특이한 경계는 한결같이 알아서 이루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간략히 요점만을 제시하여 수행인이 좌선하는 가운데 모든 경계에 망상으로 오염되지 않게 할 뿐이다.

여 병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약을 주는 자이다.

다라니는 번역하면 총지(持持)라고 하는데, 일체 선법을 지니고 흠여지거나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는 일체법을 총괄하고 한량없는 의미를 지녔다고 말하기도 하며, 선법을 잃지 않고 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총지라고 말할 수 있다.

제법실상(諸法實相)이라는 이 네 글자는 법학경의 주요골자이다. 심법계인과(法界因果)의 법이 본래 허망한 모습을 떠나 모습마다가 모두 진실임을 말한다. 때문에 제법실상이라고 부른다.

알아야 할 것은 실상은 분별상이 없다는 뜻이라는 점이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망상의 견해이다. 만일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다 해도 그 자체는 실제 있지 않는 것을 허깨비와 같은 망상의 모습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관찰한다면 차별적인 모습 그 자체에서 분별의 모습이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실상이다.

기신론에서는 "일체 차별적인 경계는 망상 분별 때문에 일어난다. 만일 망상 분별이 없다면 일체 차별적인 경계의 모습이 없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여래의 평등 법신이며 이 법신을 의지해서 본각(本覺)이라고 설명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각은 실상의 이치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마군은 내 마음밖에 실재하는 마군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분별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콘텐츠 제작 보급

동원학원은 지상강의원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선대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란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집결지인 유식학의 <신유식론> 타이틀을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s32@hotmail.net

## 허깨비인 마군을 실제 있는 것으로 착각 제법실상의 이치 관찰하면 경계도 사라져

삼보는 불법승인데, 이 세 가지는 세간에서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보배라고 한다. 그러나 이도 주지삼보(住持三寶) 동체삼보(同體三寶) 별상삼보(別相三寶)로 나뉘어 대승삼보와 소승삼보가 동일하지 않다.

是故初心行人 必須親近善知識 有如此等難事 是魔入人心 能令行者心神 狂亂 或喜或憂 因是成患致災 或時令得 諸邪禪定 智慧 神通 陀羅尼 說法教化 人皆信伏 後即墮入 出世善事 及破壞正法 如是等諸異非一 說不可盡 今略示其 要 為令行人於坐禪中 不妄受諸境界 取 要言之 若欲遣邪歸正 當觀諸法實相 善 修止觀 無邪不破 故釋論云 除諸法實相 其餘一切皆是魔事 如偈中說 若分別憶想 即是魔羅網 不動不分別 是則為法印

여기에서는 사견에 집착한 이유와 그 과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초심수행인은 최초로 발심하여 지관을 수행하는 자이다. 선지식은 병을 알고 약까지 식별하

실한 마군을 버리고 정도로 귀의하려 할 경우 제법실상의 이치를 관찰하여 지관을 훌륭하게 닦으면 그 어떤 사탄 마군이라 할지라도 타파하지 못할 일이 없다. 따라서 석론(釋論)에서는 "제법실상을 제외하고 그 밖에 일체 모든 것은 다 마군의 일이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실상을 떠난 뒤에 따로 얻을 법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계승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령 분별하고 기억하고 상상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군의 그물이며 움직이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인(法印)이다"

여기에서는 사견에 집착한 이유와 그 과보에 대해 밝히고 있다. 초심수행인은 최초로 발심하여 지관을 수행하는 자이다. 선지식은 병을 알고 약까지 식별하



###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 십이인연(十二因緣)

(6) 세계와 인생은 유심연기(唯心緣起) ①  
십이연생설은 단지 우리들의 생활내용을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분히 관념적으로 세계와 인생의 유래를 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깊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설명한 십이인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총론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심연기'의 이치를 분명히 이해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십이인연 가운데서 '무명'이 가장 으뜸을 차지합니다. 이 의미는 심오하고 미묘하여 범상한 지혜로서는 그 근원을 끝까지 추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하늘을 위로 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대지는 무엇 때문에 있는지, 우리들의 삶은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가는지, 내지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지 등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한번쯤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거기에서 어떤 명확한 해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섭사리 결론을 낼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기만 합니다. 요컨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갖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 어떤 질문도 쉽사리 용납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으며, 설사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는 곳마다 이처럼 의문투성이건만 그 근원적인 도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근원적인 도리는 원래 질문이 용납되지 않고 답변도 용납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있어서 질문과 답변을 부질없이 주고받았다면 그 결과는 오리무중일 뿐입니다. 이 같은 불분명한 상태를 십이인연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세력은 극도로 광대하고 이것이 근원적인 의지체가 되어 신구의 등 세 가지 행위조작이 일어나게 됩니다(행).

'행'은 역시 '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각의 의미입니다. 일체의 조각은 '무명'의 미혹을 의지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미혹은 조각의 작용을 일으켜 단절하지 않고 무궁하기 때문에 조각도 역시 무궁합니다.

이상의 '무명'과 '행'을 총론적으로 관찰해 보면 요즘 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맹목적(無明)이 충동적인 행위(行)'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고원사
- 주 지 : 대안 (정금호)
- 주 소 :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명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격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명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 “호타 비결전서(상·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가 될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 호 타 암 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육감납음풀이

##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감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감납음 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금급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출판 : 법우당  
02)994-4437~8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7기생 모집을 위한

## 무료 공개 강의

12월 29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사주명리

###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나은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안되는 분

\*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민육복,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장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